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9월 11일 월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강원도민일보	23면	평창서 사회복지 종사자 한자리 '도사회복지대회' 열려	1
江原日報	21면	“지역복지공동체 구현·사회복지 선진화 앞장”	2
江原日報	온라인	횡성 이장協.새마을회 “지역 화합 한마음”	3
강원도민일보	03면	오늘 함영이 한국여성수련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4
춘천MBC	온라인	한국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회 11일에 진행	4
G1방송	온라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한국여성수련원장 청문회 돌입	5
江原日報	21면	도의회 교육위 현지 시찰	5
강원도민일보	23면	도의회 교육위 홍천 석화초·홍천중 이전부지 점검	5
위클리오늘	온라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현지시찰	6
철원인터넷	온라인	강원철원-엄기호 도의원, 道 농정정책 마련 주문 관심	7
강원종합뉴	온라인	[정치] 이한영 의원,‘신·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 조례안’발...	8
강원도민일보	12면	'가을 정취 만끽하며 질주' 삼척시민 매료	9
江原日報	22면	감자꽃 필 무렵 청춘의 기억	9
江原日報	10면	주민 소통 공간 ‘홍천 이음터’ 개소	10
江原日報	16면	서면 면민 한마음 체육대회	10
강원도민일보	14면	강원특별자치도민생활체육대회 정선군선수단 출정식	10
江原日報	온라인	[포토뉴스]한국생활개선강원연합회, 세계산림엑스포 성공...	11
江原日報	온라인	[포토뉴스] 국힘 횡성청년위원회 창립 1주년	11
江原日報	온라인	제17회 김유정문학상 시상식 및 제5회 김유정청소년문학상...	12
江原日報		[포토뉴스]홍천희망로타리클럽 주민 대상 이.미용 및 의료 ...	13
강원도민일보	18면	[의정칼럼]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발굴 위한 다각적 노...	14
江原日報	온라인	[포토뉴스]강원자치도 옥외광고인 체육대회 및 옥외광고물...	15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 엄윤순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전찬성 도...	15
강원도민일보	02면	'역시 강원' 인정 받도록… 동계청소년올림픽 준비 철저	16
강원도민일보	03면	김 지사, 전임도정 플랫폼 사업 공개저격 "족족 실패"	16
강원도민일보	04면	강원대, 1도 1국립대 구성원 투표 임박 '운명의 일주일'	17
江原日報	07면	강원도 국민연금 지급액 전국 하위권	17

江原日報	01면	'추캉스' 특수에 강원 관광·유통업계 방긋	18
江原日報	02면	"흥업~지정 국도 우회로 개통 반드시 성사"	19
강원도민일보	09면	춘천 시내버스 이용객 늘어도 수입금 감소	20
강원도민일보	04면	올 6~8월 도내 평균기온 역대 세번째로 높아… 무더위 당...	20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추석 경기 골목상권, 시장에 방점을	21
江原日報	19면	[사설] 기간제 교사 급증, 교원 수급 정책 이대로 괜찮나	22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학령인구 감소 두고 볼 일 아니다	23
江原日報	19면	[사설] 케이블카 착공식 5억 투입, 전면 재검토해야	24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11일 (월)
인물 23면

평창서 사회복지 종사자 한자리 '도사회복지대회' 열려

제24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도민들의 복지증진에 힘쓰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홍기종)와 평창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효석)는 최근 평창국민체육센터에서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확충'을 주제로 제22회 도사회복지대회를 열었다. 제24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 열린 이날 대회에는 도내 18개 시·군 사회복지 종사자와 자원봉사자, 공무원을 비롯해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도의회 의장, 심재국 평창군수, 이성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 등이 참석해 사회복지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홍기종 회장은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복지네트워크를 통해 따뜻한 지역사회복지공동체를 만드는데 노력해왔다"며 "지역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지역의 관련 자원을 모으는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문제 인식과 해결역량 강화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태 지사는 "모든 도민이 귀하게 존중받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권혁열 의장은 "사회복지인들이 지칠 때 힘이 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사회복지 관련 도민 57명이 민간·행정 사회복지부문 유공자 표창 및 사회공헌장을 수상했다. 사회공헌장은 개인부문 강영희(춘천)·이병길(홍천)씨, 단체부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태백정선지사 건이강이봉사단(홍경윤)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쌍용씨앤이 영월공장(공장장 김광호)이 받았다. 강주영

특자도사회복지협의회는 최근 평창국민체육센터에서 도사회복지대회를 했다.

▶전체 표창자 명단 kado.net

江原日報

2023년 09월 11일 (월)
인물 21면

"지역복지공동체 구현·사회복지 선진화 앞장"

제22회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대회 지난 8일 평창서 열려
강영희·홍경윤·김태균·이병길·김광호씨 도 사회공헌장 수상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 분야의 선진화 향해 함께 나아갑니다."

제22회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대회가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충'을 주제로 지난 8일 평창국민체육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마련한 이날 대회는 이효석 평창군사회복지협의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유공자 표창, 기념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표창장 수여식에서는 강영희, 홍경윤, 김태균, 이병길, 김광호씨에게 도 사회공헌장이 돌아갔으며, 한영운, 전대우, 엄정용씨 등 20명에게 도지사상이, 이완규, 지성춘, 이건주씨 등 9명에게 도의장상, 정기봉, 조은기, 박복순씨 등 14명에게 도협의회장상이 수여됐다.

◇제22회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대회가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충'을 주제로 지난 8일 평창국민체육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홍기종 도사회복지협의회장은 "우리 협의회는 지역복지 공동체 구현을 위해 도내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 및 지자체, 지역사회 구성원과 함께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는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문제 인식과 해결역량도 강화해 따뜻하고 활기찬 지역사회 복지 공동체 구축에 헌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평창군은 복지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도내 최초로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등 처우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번 대회가 민관이 서로 든든한 협력자가 돼 복지 발전의 기초를 다지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오늘 상을 수상하신 단체와 사회복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간 소통과 유대 강화를 통해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복지활동을 펼쳐 달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혁열 도의장, 심재국 평창군수, 심현정 평창군의장,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등 기관·사회단체장 및 사회복지시설·기관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 1,300여명이 참석했다.

김민희·조상원기자

江原日報
2023년 09월 10일 (일)
사회

횡성 이장協.새마을회 "지역 화합 한마음"

횡성 제15회 이장. 새마을 한마음대회가 8일 횡성종합운동장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횡성 제15회 이장. 새마을 한마음대회가 8일 횡성종합운동장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횡성 제15회 이장. 새마을 한마음대회가 8일 횡성종합운동장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횡성 횡성지역 이장들과 새마을회 회원들이 화합 한마당을 마련해 지역 발전 의지를 다졌다.

8일 횡성종합운동장 내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열린 제15회 이장.새마을 한마음 대회에는 김명기 군수, 김영수 군의장과 군의원, 한창수 도의회 부의장, 최규만 도의원, 김숙자 횡성소방서장, 조경희 농협횡성군지부장과 지역 농.축협 조합장, 기관.단체장, 회원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대회는 행정과 주민의 가교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이장들과 각종 지역 현안과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새마을회 회원들이 허심탄회하게 어울리는 시간을 만들었다.

개회식에서는 모범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31명에게 유공자 표창을, 지역 발전에 이바지한 2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장, 새마을 회원 간 단합을 위해 팀 경기 위주로 대회를 구성해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이상면 횡성군이장협의회장은 "이장들과 새마을회원들이 노고를 위로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김은영 횡성군새마을회장은 "지역 사회 발전에 솔선수범하는 이장과 새마을회원들이 한자리에서 친분을 다지고,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기회가 됐다"고 했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11일 (월)
종합 03면

오늘 함영이 한국여성수련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함영이(사진) 한국여성수련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1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열린다. 도의회 한국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유순옥)는 이날 오전 10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함영이 후보자 검증에 나선다. 강릉 출신의 함 후보자는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여성가족위 수석전문위원, IBK연금보험 상무보, 김진태 도지사 후보 캠프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이설화

춘천MBC

2023년 09월 08일 (금)
강원

한국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회 11일에 진행

강원도의회가 오는 11일에
함영이 한국여성수련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함영이 후보자는 자유선진당
여성국장과 홍보국장,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유순옥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함 후보자가
원장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검증에 나섭니다.

특히, 후보자의 기본적인 공직관과
한국여성수련원의 역할과 비전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계획입니다.

백승호

bsh@chmbc.co.kr

G1방송

2023년 09월 08일 (금)
강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한국여성수련원장 청문회 돌입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한국여성수련원장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오는 11일 함영이 후보자를 대상으로 열립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후보자를 상대로 여성수련원의 존립 가치와 발전 비전, 자질과 역량 검증에 나섭니다.

청문회가 종료되면 오는 14일 후보자에 대한 적격 또는 부적격 의견이 담긴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김진태 지사에게 송부할 계획입니다.

엔사이드, 뉴스줌 등 40개 언론사 보도

江原日報

2023년 09월 11일 (월)
인물 21면

도의회 교육위 현지 시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박길선)는 지난 8일 홍천교육지원청에서 주요 현안사업 추진 사항을 확인하고, 홍천 석화초교·홍천중 이전 예정부지를 현지 시찰했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11일 (월)
인물 23면

도의회 교육위 홍천 석화초·홍천중 이전부지 점검
특자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길선)가 최근 홍천교육지원청 현안을 보고받고, 홍천 석화초·홍천중학교 이전 예정부지를 점검했다. 사진 제공=강원특자도의회

2023년 09월 08일 (금)
지역

위클리오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현지시찰

김현주 기자

[강원 위클리오늘=김현주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홍천교육지원청의 주요 현안사업추진 사항을 현지 확인하고,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9월 8일에 홍천 석화초등학교·홍천중학교 이전 예정부지를 현지 시찰했다.

김현주 기자 news8255@hanmail.net

미디어이슈, 누리일보 등 28개 언론사 보도

철원인터넷뉴스

2023년 09월 08일 (금)
강원

강원철원-엄기호 도의원, 道 농정정책 마련 주문 관심

쌀 판매·소비 촉진 위한 홍보강화 가공식품 보급 확대 정책 필요

엄기호 도의원이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 쌀 판매·소비 촉진을 위한 강원자치도의 농정정책 마련을 주문해 관심을 끌었다.

엄 의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철원군 관내 4개 농협에서 강원도 농협 전체 수매량의 47% 가량인 5만 2천여 톤의 벼를 수매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쌀 판매량의 감소로 인해 해마다 200 여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며 "건실한 지역 농협의 경영과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쌀 판매 증대를 위한 홍보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쌀 가공 식품의 보급·판매 확대와 함께 쌀 재배 면적 축소 및 대체작물 보급을 통한 가격 안정화 정책의 병행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책적 노력을 강원자치도와 교육청에 주문했다.

최종섭 기자 (cjs8532@hanmail.net)

강원종합뉴스

2023년 09월 08일 (금)
정치

[정치] 이한영 의원,'신·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 조례안'발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을 지역 주민에게 환원
발전단지 지역 주민의 고충 해결 위한 지역사업에 사용 당부

염윤선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2회 임시회가 9월 4일부터 15일까지 열린다.

지난 9월 5일, 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심사 결과 이한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국민의힘?태백)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내 풍력·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통한 개발이익을 지역발전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등에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태백 가덕산, 평창 대관령, 영월 접산의 풍력 발전단지와 횡성 현천리, 춘천 붕어섬 태양광 발전단지에서 전력판매수익금, 이익배당금 등으로 연간 40-50억의 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한다. 그동안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사용되던 수익금이 조례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재투자되고 발전단지로 인해 불편을 겪는 지역의 장학·교육 사업 등 지역 숙원 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한영 의원은 "그동안 발전단지 지역주민들은 소음, 환경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지만, 그에 비해 지원은 너무나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태백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소유한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이 반드시 돌아갈 수 있기를 당부했다.

또한, 이한영 의원은 "기후 위기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가 환경문제 등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을 보듬는 올바른 방향으로 산업을 선두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원종합뉴스 편집국 염윤선 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11일 (월)
지역 12면

'가을 정취 만끽하며 질주' 삼척시민 매료

본지 주최 시민자전거 대행진
동호인·친구 등 참가자 몰려
기념품·경품 풍성 화합의 장

'제16회 삼척시민 자전거대행진'이 지난 9일 삼척 장미공원 일원에서 박상수 시장과 이철규 국회의원, 정정순 시의장 등을 비롯해 시민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삼척시민 화합과 자전거 타기 문화 확산을 위한 '제16회 삼척시민 자전거 대행진'이 지난 9일 오십천 삼척장미공원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강원도민일보사가 주최·주관하고 삼척시와 삼척시체육회가 후원하며, 삼척시자전거연맹이 협력한 이번 자전거 대행진에는 자전거 동호인과 학생, 어르신, 부부, 연인, 친구 등 시민들이 대거 참가했다.

참가 시민들은 장미공원 잔디광장에서 출발해 삼척교와 번개시장, 한흥 프라자를 거쳐 다시 장미공원으로 돌아오는 코스를 자전거로 달렸다. 특히 가을의 초입을 맞아 화창한 날씨 속에 참가자들은 공원과 도심, 하천, 가을산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천혜의 코스를 질주하며 건강을 챙기고 시민 화합을 다졌다. 이어 완주 후에는 기념품·간식을 비롯해 TV, 자전거, 쌀 등 푸짐한 경품을 받는 행운까지 챙겼다.

행사에는 박상수 시장과 이철규 국회의원, 정정순 시의장, 양희전 부의장, 조성운·심영곤 도의원, 권정복·이광우·김희창·김원학·정연철·김재구 시의원, 최선도 삼척문화원장, 김상하 삼척시체육회장, 최영래 삼척시자전거연맹 회장, 안창남 삼척신협 이사장, 이성훈 강원도민일보 삼척지사장 등이 참석했다.

박상수 시장은 "삼척시민 자전거 대행진은 해를 거듭할 수록 시민 참여가 늘어나는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빨리 가는 자동차도 좋지만, 느린 자전거를 타면서 건강도 챙기고,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도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철규 국회의원은 "자전거 바퀴는 인류가 발명한 최고의 발명품으로, 운송의 틀을 바꾸면서 인류 발전에 이바지했고 지금은 인류 건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삼척이 수소에너지 및 이차전지 중심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정순 시의장은 "자전거는 남녀노소 모두 쉽게 접할 수 있는데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적 교통수단"이라며 "삼척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해 건강한 자전거 문화 도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정민 koo@kado.net

江原日報
2023년 09월 11일 (월)
문화 22면

감자꽃 필 무렵 청춘의 기억

16일까지 현대한국화協 대작展
양숙희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참여

양숙희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이 오는 16일까지 서울에 위치한 한가람미술관에서 펼쳐지는 '현대한국화협회 42주년' 대작(大作)전에 참여했다.

출품작 '젊은날의 기억'은 순지 위에 먹과 분채로 멋을 낸 작품이다. 작품에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의 꽃말을 가진 소박한 감자꽃이 만개한 땅 위에 한 여인이 서 있다.

양산을 쓴 채 거대한 자연을 올려다보는 여인의 모습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진다.

잔잔한 바람이 왠지 모르게 여인의 옷깃을 스칠 것만 같은 그의 작품은 수수하면서도 우아하다. 양숙희 도의원은 "오늘도 여전히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미지의 세계가 아련하게 그리워진다"며 "커다란 산 너머에는 희망과 격려와 가득한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숙희 作 '젊은날의 기억'

양 의원은 홍익대 미술대학원 동양화과 석사를 졸업하고 예술문화상과 강원도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으며,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김민희기자 minimi@

江原日報

2023년 09월 11일 (월)
지역 10면

주민 소통 공간 '홍천 이음터' 개소

【홍천】홍천군은 지난 8일 홍천 전통시장 내에서 주민과의 열린 소통을 위한 '홍천 이음터' 개소식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다.

'홍천 이음터'는 민원인들이 편하게 방문해 행정기관과 소통할 수 있는 장소로 신영재 홍천군수의 민선 8기 역점사업으로 추진됐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전통시장에 소통공간을 마련,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천 이음터'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홍천군 찾아가는 상담관과 직원이 민원상담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이날 개소식에는 신영재 홍천군수, 박영록 홍천군의장, 이영욱·홍성기 도의원, 용준식·황경화 군의원 등이 참석했다. 하위윤기자

江原日報

2023년 09월 11일 (월)
지역 16면

서면 면민 한마음 체육대회 제17회 서면 면민 한마음 체육대회가 지난 9일 서면생활체육공원에서 한기호 국회의원, 이현종 철원군수, 박기준 군의장, 엄기호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11일 (월)
지역 14면

강원특별자치도민생활체육대회 정선군선수단 출정식 제31회 강원특별자치도민생활체육대회 정선군선수단 출정식이 최근 정선농협 한우타운에서 최승준 군수, 전영기 군의장, 김기철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강신열 군체육회장, 체육회 이사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江原日報

2023년 09월 10일 (일)
사회

[포토뉴스]한국생활개선강원연합회, 세계산림엑스포 성공개최 앞장

한국생활개선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김양금)가 8일 고성군 토성면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주행사장에서 산림엑스포 성공개최 기원회식을 열었다. 이날 기원식에는 김용복 도농림수산위원장, 이순매 고성군의회 부의장, 임상현 농업기술원장 등이 참석했다.

江原日報

2023년 09월 10일 (일)
사회

[포토뉴스] 국힘 횡성청년위원회 창립 1주년

국민의힘 횡성군청년위원회 창립 1주년 기념행사가 10일 공근면 수백리 캠핑장에서 김명기 군수, 김영숙 군의장과 군의원, 최규만 도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박명서 횡성군체육회장, 진기업 석탄공사 상임감사 등 내빈, 정종화 위원장을 비롯한 회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江原日報
2023년 09월 08일 (금)
종합

제17회 김유정문학상 시상식 및 제5회 김유정 청소년문학상 시상식

8일 김유정문학촌 야외무대에서 개최
김혜진 작가… '푸른색 루비콘' 수상해

제17회 김유정문학상 및 제5회 김유정청소년문학상 시상식이 지난 8일 오후 김유정문학촌에서 열렸다.

제17회 김유정문학상 및 제5회 김유정청소년문학상 시상식이 지난 8일 오후 김유정문학촌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김혜진 작가가 김유정문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사)김유정기념사업회는 올해 문학과사회 여름호에 수록된 김 작가의 단편소설 '푸른색 루비콘'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시상식은 (사)김유정기념사업회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는 바람소리와 김용화 소리꾼의 축하공연으로 문을 열었으며, 심사경위, 심사평, 수상소감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주일 청풍 김씨 중앙대종회 부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심사위원단은 "근대의 소설이 일찌감치 떠나온 구원의 상상력이 작품 전반에 희미하게 흩뿌려져 있다"며 "소설은 마지막까지 아주 사소한 그러나 꽤 끈덕진 보상을 감동으로 전한다"고 평했다.

김혜진 작가는 수상소감을 통해 "이 상은 제가 미처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우연과 오해를 더 신뢰해도 된다는 주문과 당부처럼 느껴진다"며 "크나큰 격려와 응원을 얻게 돼 너무 감사하다"고 밝혔다.

제5회 김유정청소년문학상 수상자들을 축하하는 자리도 함께 펼쳐졌다.

부문별 수상작은 김수아(고양예고 2 운문) 학생이 출품한 '은수는 자꾸 길어지기에'와 정채민(경기 고양 덕이중 3 산문) 학생이 쓴 '발 없는 세상'이 차지했다.

김수아 학생은 "잘 하는 일을 항상 빈칸으로 남겨뒀는데, 오늘 이후로 망설이지 않고 적을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말했다. 정채민 학생도 "작품을 만드는 동안 정말 행복했다"며 "더 많이 노력해서 상에 보답할 수 있는 작가가 되겠다"고 기쁜 마음을 드러냈다.

김금분 (사)김유정기념사업회 이사장은 "문학상은 한국 근대문학의 자랑인 김유정 문학가를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며 "수상자들 또한 한국 문단의 중심으로서 꾸준히 좋은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미래 샛별을 지원,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진태 도지사는 축전을 보내 "우리들의 영원한 향토작가를 선양하기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신경호 도교육감은 "한국 문학사의 거목이신 김유정 선생께서는 문학도시 춘천을 탄생시킨 장본인"이라며 "수상의 영광을 나눈 이들에게 축하를 전하고, 더불어 문학상이 더욱 높은 위상을 갖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육동한 춘천시장도 "김유정문학상과 청소년문학상은 해를 거듭할수록 대단한 수작들이 선정되고 있다"며 "화해와 융합의 과정을 품고 있는 김유정 선생의 작품을 받들어 더욱 아름다운 춘천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상식에는 김진호 춘천시의장, 박광용 도 문화예술과장, 비롯해 이건실 도노인회장, 임미선 도의원, 김별아 강원문화재단 이사장, 전금순 강원자치도 여성특별보좌관, 정명자 (사)김유정기념사업회 후원회장, 원태경 김유정문학촌장, 이금선 강원경제단체연합회장, 한경숙 강원여성100인회 이사장, 권순환 위암수력발전소장, 박종원 KBS 춘천방송 총국장, 전종률 G1방송 대표이사 사장 직무대행, 이수형 (사)사랑나눔 이사장, 류영균 춘천시민회 중앙회장, 장승진 춘천문인협회장, 기연옥 춘천시여성단체협의회장, 김희선 전 춘천시여성단체협의회장, 이복수 전 강원수필문학회장 등 내빈과 문화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江原日報
2023년 09월 10일 (일)
사회

[포토뉴스]홍천희망로타리클럽 주민 대상 이.미용 및 의료 봉사활동

홍천희망로타리클럽(회장:김영인)과 강원생활과학고 새작들인터랙트클럽은 지난 9일 북방면 복지회관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미용 및 의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신영재 홍천군수, 유상범국회의원, 박영록 홍천군의장, 이영욱.홍성기도의원, 최상순 대한건설협회 강원자치도회장, 하명호 국제로타리3730지구 총재 등이 참여했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11일 (월)
오피니언 18면

의정칼럼

심오섭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발굴 위한 다각적 노력을

강원지역 가치있는 유산 산재
세계유산 등재 추진 조례 마련
학술적 연구·전략 수립 동시에
홍보대책 마련 도민 동참 필요

유네스코 등재유산이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유네스코가 '세계유산 일람표'에 등록한 문화재로, '세계유산', '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으로 구분합니다.

그중 특히 세계유산은 산업화 과정에서 소멸하고 있는 유산을 보호하고 계승하기 위해 1972년 보존하기 시작했으며,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을 대상으로 현재 전 세계 167개국에 총 1212점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의 세계유산은 1995년 석굴암과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의 등재를 시작으로 해마다 확대되며 현재 총 15점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랑스러운 세계유산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의 세계유산은 조선왕릉에 속한 영월 장릉이 유일합니다.

우리 도에도 가치 있는 유산들이 산재함에도 불구하고, 발굴과 등재를 위한 준비가 부족하여 매우 안타깝습니다. 특히, 2018년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당시, 강원의 산사는 모두 누락되었던 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사고를 보유한 오대산 월정사와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불화인 영산회상도 등성보를 보유한 설악산 신흥사는 지정 창건 이후 지금까지 현존하며 삼국시대 이후 역사와 문화를 실증하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찬란한 '강원의 산사'의 가치를 적극 알려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행정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 선행과제로서 첫째,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행정적 제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강원 특별자치도의 조례, 조직의 기반이 구축되어야 하며 문화유산 정책 수립과 보존을 위해 전문인력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세계유산전담팀을 마련하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도에도 문화유산 TF팀이 신설되었는데, 팀의 전문성을 확대하고 향후 정규 직제화를 통해 문화유산의 정책사업을 힘있게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강원의 산사'의 중요성을 확대하기 위한 학술적 연구가 필요합니다. 특히, 강원 산사의 세계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학술적 연구와 등재 기준의 관계성을 연계하기 위한 전략을 함께 수립해야 합니다. 문화재청은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와 발굴을 위한 지원, 지자체 간 연속성이 있는 유산의 통합적 가치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적극 활용하여 강원의 유산 또는 협력가능한 유산발굴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세계유산 등재를 함께 희망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붐업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강원의 산사'의 세계유산 등재를 비롯하여 우리 도의 문화유산을 확대 발굴하고, 보존·활용하는데 도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세밀한 홍보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해 7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며 우리 도는 '예맥역사문화권'으로 독립정의 되었습니다. 독자적인 역사문화권으로 정립된 만큼, 고유한 역사성과 특수성을 가진 문화유산의 의의를 발굴해 나갈 당위성과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이러한 절실함은 세계유산 등재라는 쾌거로 이어져야 합니다. 월정사와 신흥사는 불교계, 지자체, 정부기관 등의 협력으로 사라진 역사를 되찾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강원특자도가 그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환히 밝혀 '강원의 산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할 때입니다.

江原日報

2023년 09월 10일 (일)
사회

[포토뉴스]강원자치도 옥외광고인 체육대회 및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선포식

강원자치도 옥외광고인 체육대회 및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선포식'이 지난 9일 홍천읍 생활체육공원에서 신영재 홍천군수, 유상범 국회의원, 박영록 홍천군의장, 이영욱.홍성기 도의원, 김광수.황경화 군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江原日報

2023년 09월 10일 (일)
종합

[동정] 엄윤순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전찬성 도의원

엄윤순(인제)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전찬성(원주) 도의원은 11일 오후 3시 도여성가족연구원 1층 강당에서 열리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촌 인구유입 확대를 위한 귀농귀촌인 유치 활성화 포럼'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11일 (월)
종합 02면

‘역시 강원’ 인정 받도록…동계청소년올림픽 준비 철저

정부 지원의사 재표명 ‘순항’

시설 보수·의료지원 집중 점검

내달 11일 ‘G-100 붐업 행사’

윤석열 정부 임기에서 치러지는 유일한 국제 스포츠 대회인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의사가 재표명, 대회 준비가 순항하고 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8일 전주시에서 열린 제1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가 청소년들의 스포츠·문화예술 축전으로 매력적인 패러다임을 펼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다양한 문화 교류를 추진할 것을 중국과 일본 문화장관에게 제안했다.

2024 대회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발언이 5일 만에 공식석상에서 다시 이뤄졌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3일 평창 컬링센터를 현장점검하며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는 새만금 잼버리 대회 초기의 아쉬움과 답답함이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대회 성공 개최 지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원도는 1991년 고성 잼버리대회,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성공 개최의 DNA와 경험, 전통과 열정을 축적하고 있는 곳”이라며 강원특별자치도 차원의 대회 운영 관리 능력에 힘을 실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2024 조직위는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김진태 지사는 지난 8일 평창에서 주재한 대회 준비상황 보고회에서 “‘역시 강원’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림픽 개막까지 13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새만금 잼버리 사태 이후 언론과 국민 이목이 쏠리고 있다”면서 “도와 조직위, 개최 시·군이 꼼꼼하게 준비상황을 잘 살피고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날 보고회에선 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행과 맞물려 논란이 될 수 있는 안전·의료지원·위생 등 각 분야에 대한 점검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올림픽 경기장은 총 9곳(설상 5·빙상 4)이다. 평창올림픽 경기장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분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곳은 보강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8일 기준 보수·보강 공사 공정률은 85%다. 도는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각 시설을 조직위에 인계할 계획이다.

도와 조직위는 대회 개최 100일 앞인 10월 11일엔 G-100 붐업 행사와 성화 투어를 시작으로 K-Culture 페스티벌, 배후도시 문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붐업 확산에 나선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주관하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은 제4회가 되며, 강원대회는 아시아권에서 개최되는 첫 대회다. 80여 개국, 15~18세 청소년 선수 1900명을 포함해 약 1만 5000여 명이 참가한다. 내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평창, 강릉, 정선, 횡성에서 열린다.

김덕형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11일 (월)
종합 03면

김 지사, 전임도정 플랫폼 사업 공개저격 “족족 실패”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와 업무협약

김진태 지사가 전임 도정에서 추진한 디지털 플랫폼 사업들이 “족족 실패했다”며 공개 저격했다.

김 지사는 지난 8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지역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배달의민족이 잘된다고 하니 일단시켜, 야놀자 잘된다고 해서 도내 숙박업소 다 모아서(일단떠나를) 도 차원에서 운영한다. 저 같아도 잘 안 들어간다”며 “민간에서 잘 하는 것을 비슷하게 만드는 족족 실패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 마인드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며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가 막강한 데이터 베이스와 노하우 등을 토대로 강원도를 도와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데이터산업과 미래산업의 동반성장을 이끌고 데이터를 활용한 도민 체감형 디지털전환 서비스 체계를 구축, ‘데이터 산업 수도’를 구현할 계획이다. 도는 ‘비전 333 프로젝트’(디지털 기업 3배·종사자 3배·매출 300% 성장)를 목표로 46개 핵심과제를 진행한다.

김덕형 duckbro@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11일 (월)
종합 04면

강원대, 1도 1국립대 구성원 투표 임박 '운명의 일주일'

찬성 "입학자원 감소 대응 필요"

반대 "통합 후 부작용 등한시"

15일 결정 기준 미충족 시 중단

속보=강원대와 강릉원주대가 추진 중인 '강원 1도1국립대'의 향배가 오는 15일 결정(본지 9월1일자 4면 등)된다. 여전히 학내 의견이 분분, 양 대학 간 통합이 실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본지 취재결과 강원대는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15일 오후 8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시스템을활용해강원1도1국립대학에 대한 구성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투표 대상은 총장을 비롯한 교수(비전임 제외), 조교를 포함한 전 직원(일부 계약직 제외)과 총학, 각 단과대·학과·전공 학생회장 등으로 구성된 학생 대의원이다. 결과는 15일 오후 8시 투표 종료 이후 즉시 학교 홈페이지에 발표된다.

대학본부 측은 구성원 대상 투표 이후 사전에 협의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강원1도1국립대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강원대와 강릉원주대 측은 대학 한 곳당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선정되고자 양 대학간 통합(1도1국립대)을 제시, 현재 예비대학에 포함된 상태다. 두 대학은 사업 진행을 위해 구성원 의견수렴이 필요한 상황이다.

투표가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강릉원주대와의 통합에 대한 학내 찬반은 여전히 분분하다. 찬성 입장을 밝힌 구성원들은 이미 1도1국립대를 모델로 제시해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예비선정된 상황에서 탈락할 경우 발생할 부작용 등을 고려해 강릉원주대와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학과장은 "몇 년 후에는 입학자원이 대폭 준다. 그때 가서 진통을 겪기보단 선제적으로 두 대학을 통합해 부작용을 줄이는 쪽이 낫다"고 밝혔다. 농생명과학대 소속 한 교수도 "1도1국립대 이외에는 글로컬대학 사업에 제안할 만한 대안이 없다"며 "반대하기보단 통합 이후 어떻게 잘 해 나갈지를 고민해야 할 단계"라 말했다. 강원대 한 관계자는 "처음에는 부정적인 여론도 제법 있었으나 꽤 많은 인원이 찬성으로 돌아선 상태"라 주장했다.

반면 두 대학 간의 통합을 우려하는 의견도 여전하다. 보직자로서 김헌영 총장과 일했던 A교수는 "글로컬대학 사업 발표 후 너무 급하게 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통합 이후 발생할 갈등이 고려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B교수도 "5년간 지원되는 1000억원이 국립대 두 곳을 합칠 정도로 파격적인 지원인지 의문"이라며 "현 총장은 강제적인 통합이 없을 것이라 약속했으나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학생이 줄면 분명 4개 캠퍼스 중 문을 닫는 곳도 발생할 것"이라 주장했다.

강원대 대학본부는 투표 직전까지 계속 설명회를 진행해 구성원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민엽

江原日報
2023년 09월 11일 (월)
경제 07면

강원도 국민연금 지급액 전국 하위권

1인당 '월평균 52만3,993원'

17개 시·군 중 다섯번째 낮아

강원특별자치도민 1인당 국민연금 월평균 지급액이 52만3,993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다섯 번째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의 '17개 시·도별 국민연금 월지급액 평균(2023년 5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강원지역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22만2,963명이고, 수급자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은 52만3,993원이다. 전남(48만3,025원), 전북(48만5,092원), 충남(50만8,463원), 제주(51만9,149원)에 이어 다섯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울산(74만5,936원)이었다. HD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등이 있는 만큼 고소득 근로자가 많아 국민연금 수급액 통계에서 오랫동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어 세종(60만3,823원), 서울(60만2,580원), 경기(58만9,942원), 인천(57만610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수급액이 적은 전남(48만3,025원)과 가장 많은 울산과는 26만원 이상 차이가 났다.

또 '전국 229개 시·군·구별 1인당 월지급액 평균' 자료를 살펴보면 최신 통계인 올 5월 기준 국민연금(노령·장애·유족연금 포함) 평균 수급액이 가장 많은 곳 역시 울산 동구로, 1인당 월 88만4,532원이다. 강원자치도 내 시·군은 10위 안에 단 한 곳도 포함되지 못했다.

장현정기자 hyun@kwnews.co.kr

江原日報
2023년 09월 11일 (월)
종합 01면

'추캉스' 특수에 강원 관광·유통업계 방긋

〈추석+바캉스〉

추석 '6일 황금연휴' 효과

당장 해외여행 준비 어려워 도내 호텔·리조트 예약 만실

선물 미리 보내는 수요 급증 마트 관련 매출 20%대 증가

정부가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추석 연휴가 6일로 늘어나면서 강원특별자치도 내 관광·유통업계도 덩달아 호황을 누리고 있다. 연휴 기간 도내 주요 호텔·리조트는 만실에 가까운 예약률을 보이고 있고, 여행 전 미리 선물을 보내려는 수요가 몰리며 유통업체들은 역대 최고 수준의 선물세트 사전예약 실적을 기록했다.

■ **호텔·리조트 예약 마감**=G마켓에 따르면 정부가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한 8월31일부터 지난 6일까지 국내 여행상품 판매 건수는 직전 주 대비 88% 급증했다. 실제 도내 호텔·리조트를 향한 관심은 폭발적이다. 징검다리 휴무 때에도 회사에 연차를 낸 사람들로 예약이 다 차가는 곳이 많았는데, 임시공휴일 효과가 더해지며 빈 방을 찾을 수 없을 정도다.

평창 휘닉스파크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호텔·콘도 전 객실 예약이 마감돼 대기를 걸어야 한다. 같은 기간 소노인터내셔널이 운영하는 쏠비치 양양, 쏠비치 삼척, 고성 델피노, 홍천 비발디파크 등도 만실 상태로, 대기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한화 설악 쏘라노 역시 28~30일 기준 평균 예약률은 99%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해외여행은 비용을 줄이고자 몇 달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보통"이라며 "지금 당장 해외로 가기에는 시간도 촉박하고 비용 부담도 커 국내 여행을 선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선물 매출 역대 최고**=유통업체들도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짧게는 6일, 개인휴가를 이어붙일 경우 길게는 12일에 달하는 연휴에 장기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늘며 고향에 미리 선물을 보내려는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등 도내 6개 점포를 둔 이마트의 이번 추석 선물세트 매출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판매 시작일인 8월10일부터 지난 7일까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5% 신장했다. 롯데마트 역시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7일까지 추석 선물세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0% 증가했다. 품목별로 축산과 과일 매출이 각각 50%, 20% 늘었다.

높은 수요에 도내 업체들의 판촉 경쟁도 달아오르고 있다.

춘천의 향토마트인 MS마트는 오는 14일까지 선물세트 사전예약을 진행한다. 구매 금액에 따라 상품권을 제공한다. 벨몽드는 11일부터 1주일간 선물세트 사전예약을 받으면서 할인도 적용한다.

오영철 벨몽드 영업이사는 "아직 사전예약을 개시하기 전이지만 추석 선물세트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haha@

江原日報
2023년 09월 11일 (월)
종합 02면

"흥업~지정 국도 우회로 개통 반드시 성사"

원희룡 국토부장관 원주 방문
브리핑서 서부구간 개설 약속
"광역철도 원주 연결 연구 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주지역 숙원사업인 '국도대체우회도로 서부구간' 개설을 약속했다.

지난 8일 국도대체우회도로 원주를 찾은 원 장관은 원주 흥업면 사재리 광터사거리에서 원강수 원주시장으로부터 국도대체우회도로 서부구간(흥업~지정)의 조기 개설 필요성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원주시는 국토교통부에 20여년째 답보 상태인 국도대체우회도로 서부구간의 조기 개설과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상습 지정체 구간인 국도 42호선 문막~흥업 6차로 확장사업 반영을 요청했다.

원 장관은 "국도대체우회도로 완전 개통 요구는 그동안 경제성만 따지면서 성사되지 않았고, 병목현상이 심화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간 균형발전의 공약인 만큼, 꼭 완수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원주역으로 장소를 옮긴 원 장관은 수도권과 원주와의 철도교통망 연결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원강수 시장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GTX 수서~원주 간 순환운행과 경강선(판교~여주)과 경의·중앙선(문산~지평) 수도권 광역철도의 원주 연장 운행을 요청했다.

원 장관은 "수서~광주선이 개통되면 수서~원주 노선이 '환승'에서 장기적으로는 '직접 연결'로 방향을 잡고 연구 중에 있다"며 "원주에서 서울 강남과 북부지역, 인천으로 이어지는 전철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공약인 GTX-D 노선 신설을 위한 연구용역이 원주 연결성을 고려해 올해 말 발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정하(원주갑) 국회의원은 "원주는 수도권에서 경북권과 충청권으로 연결되는 관문이지만 그동안 혈맥이 막힌 상태"라며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발갈이 하는 심정으로 국회에서 강원권 도로·철도망 확충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허남윤기자 paulhur@kwnews.co.kr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원주역을 방문, 원강수 원주시장,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과 함께 지역 현안인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추진 현황을 살피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11일 (월)
지역 09면

춘천 시내버스 이용객 늘어도 수입금 감소

시, 지난해 127억원 재정지원

시민 1인당 부담금 4만원 넘어

"원가 절감·재정 효율 높여야"

춘천시 버스 운영 실태 단위/만명, 억원

연도	2019	2020	2021	2022
이용객	1250	864	882	**1066**
수입금	135	92	93	**90**
재정지원금	21	93	118	**127**

속보=춘천시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 규모가 최근 3년새 6배가 증가(본지 9월8일자 3면)한 가운데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이용객수는 늘었으나 수입금은 감소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시내버스를 타지 않아도 시민 1인당 부담해야할 버스비용이 연간 4만원을 넘어섰다.

10일 본지 취재 결과 코로나19 이후 춘천시 버스 재정지원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2019년 21억825만원이었던 지원 규모는 2020년 93억8229만4000원, 2021년 118억712만3000원, 지난해 127억5245만5000원을 기록했다. 3년새 6배가 증가한 셈이다. 이는 춘천시민 1인당 연간 4만2500원 정도를 시내버스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춘천시는 2019년 11월 단행한 노선개편이 안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이용객이 급감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가 완화, 이용객이 늘었음에도 수입금은 줄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 1250만명이던 승객수는 2020년 864만명, 2021년 882만명, 지난해 1066만명으로 2020년 이후 증가세다. 하지만 같은 기간 수입금은 135억원에서 92억원, 93억원, 90억원으로 감소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와 청소년·어르신 무료이용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요금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시민이 부족했다"고 했다.

민선 6기 말부터 시작된 시내버스 문제는 수년째 지역의 현안이다. 민선 6기말, 민선 7기 초까지는 버스회사가 파산 위기에 직면했고 민선 7기 춘천시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단행하면서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을 구분, 버스 운영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하지만 시행 초기부터 시민들의 불편이 잇따랐고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춘천시는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어야 했다. 민선 8기 이후 버스 운영 체계는 준공영제로 전환됐으나 아직은 안착단계다.

김운기 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장은 "이제 버스는 복지분야로 접근해야하는데 준공영제 단계에서 시비 투입에도 한계가 있다"며 "버스회사 자체적으로 원가절감과 서비스 개선으로 이용률을 올려야하고 춘천시도 시내버스·마을버스 운영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검토, 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높여야한다"고 했다. 한편 육동한 춘천시장은 11일 오전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내버스 부분 개편안을 발표한다. 오세현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11일 (월)
종합 04면

올 6~8월 도내 평균기온 역대 세번째로 높아…무더위 당분간 지속

올 여름 강원도의 평균기온이 역대 세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지방기상청이 최근 발표한 '2023년 여름철 강원도 기후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6~8월 강원도내 평균 기온은 23.8도로 평년(22.5도) 대비 1.3도 높았다.

이는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후 세번째로 높은 여름 평균기온이다. 이번 여름철 무더위의 원인으로는 6월 하순에서 7월 상순 사이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불어 온 고온다습한 바람이 지목됐다. 더불어 태풍 '카눈'이 동중국해상에서 북상하면서 태풍에서 상승한 기류가 우리나라 부근으로 하강하면서 기온을 크게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 여름 강원도 강수량은 805.7㎜로 평년(665.8~847.5 mm)과 비슷했지만 강원영동은 880.8㎜로 평년(577.4~722.2㎜)보다 많은 비가 내려 역대 7위를 기록했다. 무더위는 당분간 계속된다. 지난 9일 기준 도내 주요지점의 일최고기온은 양구 31.4도, 인제 31.2도, 춘천 30.7도, 원주 30.7도, 영월 30.7도, 홍천 30.5도, 철원 30.3도를 기록하는 등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도는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늦더위의 경우 따뜻한 동풍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11일 도내 아침 최저기온은 영서 17~20도, 영동 18~20도, 낮 최고기온은 영서 28~30도, 영동 26~28도로 예보된 가운데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김정호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11일 (월)
사설/칼럼 19면

추석 경기 골목상권, 시장에 방점을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되려면 지자체 역할 다각적이어야

추석 명절 대목을 앞두고 있지만 강원 지역 상권 체감 경기는 그리 밝지 않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에서 발표한 최신 8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과 향후 소비 지출 전망 등이 낙관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추석 관련 물품 가격이 인상되면서 물가 불안감이 커진 데다가 임금은 떨어지고 가계 부채는 상승하는 등 가계 부담 3중고에 처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상품권 할인율을 확대하거나 지역 특산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행사를 마련하고 있지만, 경기 활성화를 체감하기엔 역부족입니다.

도내 7개시 500여가구 응답을 토대로 소비자동향을 분석한 결과 가계 재정 상황은 전월에 비해 1~2p 상승하거나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은 하락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판단에 대해 전월 대비 1p 하락했으며 향후 경기 전망은 전월에 비해 무려 8p 떨어졌습니다. 가계 저축과 부채 상황에 대한 인식도 전월 대비해 좋지 않았습니다. 가계 저축 현재 및 전망 4~3p 떨어졌습니다. 경기 상황을 낙관하지 못하면 소비 심리는 더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소비 심리를 일으키기 위해 지자체마다 부심 중입니다. 강원중소벤처기업청과 춘천시는 9월 8~9일 시청광장에서 춘천금빛장터를 마련했습니다. 14개 기관이 참여해 중소기업 선물 우수제품 할인 판매전 등을 열어 판로 진출을 도왔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온라인 쇼핑몰 '강원더몰'과 인제군의 '인제몰' 등 지자체 인터넷 쇼핑몰에서 추석맞이 특가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수원에서는 강원도민일보 등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대한민국 명품 특산물 페스티벌을 열어 판매를 촉진했습니다.

이런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더 방점을 찍어야 할 정책은 체감하는 재래시장과 골목상권 경기 회복입니다. 소상공인의 90%가 개인사업자이고 골목상권은 연령을 가리지 않고 생계형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역경제 근간입니다. 골목상권 낙후는 지역상권 전체의 침체를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생활권역 내 소비 축소 등 연쇄적으로 순환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춘천시를 비롯해 지자체에서 지역상품권 할인율을 높이면서 이용이 늘 것으로 기대되긴 하나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고 외지인 방문 장소로 호평받으려면 특색적인 문화를 갖춰야 합니다. 지자체의 더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江原日報
2023년 09월 11일 (월)
사설/칼럼 19면

기간제 교사 급증, 교원 수급 정책 이대로 괜찮나

강원지역 기간제 교원 수가 10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올 4월 현재 강원지역 기간제 교원 수는 1,636명으로 2022년(1,340명)에 비해 22.09% 급증했다. 2009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도내 기간제 교원 수는 2019년 1,000명을 돌파한 이후 2020년 1,181명, 2021년 1,298명, 지난해 1,340명 등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2.2배, 20년 전과 비교하면 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 같은 현상은 정부의 교원 감축 정책 여파다. 실제 2024학년도 초등교사 선발 인원은 75명으로 3년 연속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도내 교사 부족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농촌지역은 기간제 교사를 구하는 것조차 '하늘의 별 따기'다. 도농 간 교육 격차 심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교육 격차의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게 된다. 공교육이 무너지는 순간은 바로 이 지점이다. 교육당국이 보다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교육 당국은 이런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기간제 교사의 처우를 정규 교사와 동일하게 할지를 다투는 데 그칠 일이 아니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사의 일시적 결원을 대체하기 위한 예외적 제도다. 하지만 현실은 그런 취지에 맞게 운용되지 않고 있다. 기간제 교사는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애초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정규 교사가 퇴직하면 그 자리를 기간제 교사로 채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당장 교사가 부족하니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근본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더는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학교 현장의 교육 수요 및 교사 수급 상황을 정밀히 점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원단체들은 학교 현장에 필요한 정규 교원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의 교원 수급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교원의 수급 공백은 기간제 교사 양산을 초래하고 교단의 열정, 사기 저하와 교육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나아가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 수급 정책을 수립하면 인구가 적은 강원교육은 갈수록 황폐화될 수밖에 없다. 교육 환경이 열악해지면 지역 주민들이 마을을 등지고 자연히 인구가 줄면 지역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강원교육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원 확보가 선결 과제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11일 (월)
사설/칼럼 19면

학령인구 감소 두고 볼 일 아니다

-감소폭 예상치의 3배… 학군 조성 등 대책 필요

강원지역 학령인구 감소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여기기엔 감소 폭이 너무 큽니다. 학생감소는 지역 공동화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산업 부재에 따른 인구 유출과 이로 인한 학생감소는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산업과 교육을 연계하는 장기 대책이 필요합니다. 한편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단기적인 대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더불어 외지 학생들이 강원지역에서 공부할 여건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도내 학령인구 감소세가 당초 예상치를 상회하며 급락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교육청이 발표한 '2024~2028학년도 중장기 학생 추계'를 보면 올해 도내 초중고 학생 수는 14만2981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도내 초중고 학생 수 14만6274명 대비 3293명 줄었습니다. 교육 당국은 올해 초중고 학생 수를 지난해 14만6274명보다 1082명 준 14만5192명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감소세는 예상보다 3배 더 많은 셈입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못해 우려가 큽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2026년이 되면 도내 초중고 학생 수가 13만6599명을 기록하며 14만명 선이 붕괴할 것으로 예측했고, 2028년에는 13만명 선이 무너진 12만7251명으로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와 비교해 5년 사이 학생 1만5730명, 11%가 감소합니다. 학생 수 감소 현상은 초등학교에서 두드러질 전망입니다. 학생 수 감소로 내년에도 통폐합되는 학교가 발생합니다. 도교육청이 밝힌 폐지 예정 분교장은 화천초 논미분교장, 인제 원통초 신덕분교장, 고성 광산초 흘리분교장·대진초 명파분교장 등 4곳이며 화천 오음초와 봉오초는 본교에서 분교장으로 개편됩니다.

학령인구와 학생 수 감소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도시와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과 저출산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지역의 존폐와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농촌 유학 활성화와 강원형 자율학교 확대, 강원형 마이스터고 등을 통한 도교육청의 학생 유치 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무엇보다 학부모의 관심을 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우수 학군 조성입니다. 입시 과열을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는 없지만, 부정할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기존에 제시된 대책을 포함해 다양한 해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江原日報
2023년 09월 11일 (월)
사설/칼럼 19면

케이블카 착공식 5억 투입, 전면 재검토해야

양양군이 다음 달 말께 있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착공식 사업비로 추가경정예산안에 5억원을 편성, 군의회에 제출한 것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정부의 긴축 예산 편성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당장 군의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7일 열린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봉균 의원은 "재정이 열악한 양양군이 1회성 행사에 5억원을 쓴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비판했다. 양양군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가 강원특별자치도의 40년 숙원이었던 만큼 착공식을 성대하게 치르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오색케이블카 착공은 양양군민은 물론 강원인 모두가 하나 돼 이뤄낸 성과물이다. 삭발 투쟁과 궐기대회 등 그 과정은 참으로 험난했다. 사업을 추진한 것은 1982년부터다. 양양군 차원에서 설악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2케이블카 설치를 요구해 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사업이 번번이 무산됐다. 환경영향평가를 놓고도 환경부와 지리한 공방이 있었다. 그야말로 그 여정은 '투쟁'이었다.

따라서 성대한 착공식으로 그간의 노고를 서로 위로하며 완공에 가속도를 내겠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때문에 양양군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착공식 취지나 동기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양양군의 착공식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 이는 양양 주민들은 물론이고 강원인들의 결속력을 다지는 일에도 일조한다. 문제는 단일 행사에 5억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이 편성됐다는 점이다. 이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식 예산과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인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올 6월9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식을 양양군이 편성한 오색케이블카 착공식 예산의 16% 수준인 8,000만여원으로 치렀다. 628년 만에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 열린 이날 출범식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관계자와 강원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등 각계각층의 강원도민 1,200여명이 참석했다.

양양군, 추가경정예산 편성 군의회 제출
정부의 긴축 예산 편성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식 8,000만원으로 치러

양양군은 오색케이블카 착공식 사업비 5억원 편성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해야 한다. 이 사안은 주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예산을 너무 가볍게 보고 그에 따른 예산 낭비에 관한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 문제가 생기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기보다는 당장만 대충 넘기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자세와 그에 따라 당연히 뒤따르게 돼 있는 원론적인 해명이 이번에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즉, 착공식 예산 5억원 중 2억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주요 인사 참석 시의 경호 등을 위한 예비비 성격이라는 설명이 그것이다. 그래서는 양양군의 예산 편성이 촘촘하게 이뤄질 리가 없다. 양양군의 지역발전 정책과 주민 간의 간격만 벌려 놓을 뿐이다. 양양군은 오색케이블카 착공식 예산을 다시 들여다보고 전면 재조정해야 옳다.